

自淨능력으로 극복해야 할 퇴폐성

사회적 책임의식 선행돼야...일본만화 상륙은 시기상조

이원복

덕성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정한모)는 「만화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5월 28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가졌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만화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김재은) 「한국만화의 현실을 진단한다」(이원복) 「만화문화의 발전방향」(임청산)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이원복·임청산교수의 발표요지.

현대 대중사회에서 만화가 지니는 영향력은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조차 없어졌으며 영상매체의 활자매체의 장점을 고루 갖춘 매체적 특성 또한 점차 널리 인식되어 그 활용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만화의 산업적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되었고 사회의 만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져, 이제 한국만화는 일대 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정보사회에서 정보전달의 주체인 매체는 국민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는 나라와 사회마다 제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중매체,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인식되고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는 만화는 많은 모순과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만화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반 대중매체장르가 공동으로 갖는 문제로서 넓게 보아 한국의 체제와 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사실, 한국만화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저질, 폭력, 외설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며 상업주의와 이에 따른 과당경쟁의 산물이다.

멈추어지지 않는 '자극의 에스컬레이션'

한국만화의 섹스와 폭력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바로 지금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단, 이는 합법적 경로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는 만화를 일컫는 것이며, 지하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도색·폭력물은 상업주의가 발달한 나라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존재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이 제작·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단 공안차원의 문제이므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성인만화라 하여 주간지, 스포츠신문을 통하여 공급되는 만화의 섹스

폭력은 비록 아직까지는 그 한계선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과정에서 소비대중의 기호영합과 더욱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와중에 그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길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

주간지나 스포츠신문은 대중매체로 대중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에게 성적, 폭력적 간접경험이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된 대중매체가 이들을 의식하여 성인만화의 한계를 위축시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청소년차원이 아닌 국민전체의 정서와 도덕에 해악이 되는 내용과 주제는 편집자와 작가 스스로 기피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들 제작주체들이 나름대로 서로 다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경쟁사회에서 '자극의 에스컬레이션'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문·주간지의 만화가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기 전에 스스로 하한선을 분명히 긋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평부재가 만화발전 가로막아

특히, 스포츠신문은 거대언론기관이 발행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만큼 편집자의 양식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차질 심각한 신문만화 공해를 저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신문들은 신문들대로, 잡지는 잡지대로 매체적 특성을 감안해서 편집자 및 독자가 참여하여 자율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윤리규정을 더욱 구체화, 사례화하는 것으로 신문·잡지만화가 다루어서는 안될 주제나 표현의 한계점을 분명히 하는, 다시 말해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공고히 함을 뜻한다.

우리 만화계가 최근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인 향상이 문제되고 있는 큰 원인의 하나가 비평과 이론이 극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만화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도 만화는 '그저 재미있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은 스스로 만화의 지위향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만화에 대한 의식의 개선을 바라며 작가에 대한 정당한 대접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만화

이론부재는 우리나라 만화문화의

심각한 문제이다.

만화가 지망생이 교재로 삼을 만한

개론서 하나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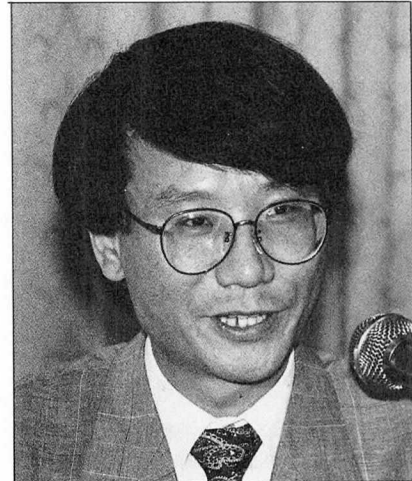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는 불량만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불량·우량을

판정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를 당당한 문화의 한 장르로 인식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며 모순이다. 만화의 질을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평론과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비평과 이론은 이런 까닭에 절대 필요하다.

최근 만화비평이 간혹 잡지에 게재되기도 하고 이론서도 번역서이기도 하나 한두권이 눈에 띄이기는 하나 아직도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간지나 스포츠신문 등 만화를 비중있게 다루는 간행물들은 만화비평란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론부재는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이다. 만화가 지망생이 교재로 선택할 만한 개론서 하나 없는 것이 우리 만화문화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불량만화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불량·우량을 판정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생력 키워 일본만화 침투막아야

음란·폭력·퇴폐만화, 이른바 지하만화가 시중에 유행하여 청소년들에게 은밀히 번지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주로 일본 저질만화를 무단복제하여 조잡한 장정으로 비밀판매조직 및 일부 만화가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 대중문화의 쓰레기인 이런 불법지하음란물은 만화뿐 아니라 비디오, 잡지, 사진 등 어느나라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지만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된다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문제이나 제한된 공권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하만화의 유통을 막는 가능한 방법은 공권력을 통한 근절책보다는 그것이 지하에 머물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만화와 불법만화를 구분짓는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고, 만화가계가 이를 다루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본만화에 대한 시장개방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일본만화가 우리 독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시대적인 추세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일본만화 상륙은 그나마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만화의 존재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염려가 있다. 주로 일부 출판사, 언론사에 의해 추진되는 일본만화 상륙은 '한국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편집자들이 高價의 국내작가 원고료에 대응하여 값싼 수입만화를 선호하려는 점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일본만화에 대한 개방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 만화시장은 외설위주의 저질 일본만화에 휩쓸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일본만화 상륙은 아직 절대적으로 시기상조이고, 개방해야 한다면 엄격한 심의규정을 활용한 간접규제로 최대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만화 상륙에 대항하기 위한 만화계의 자구책으로 폭넓은 신인작가의 등용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인기작가 몇몇에 편중되어 있는 편집과 이에 따른 질적 저하가 막아질 것이기 때문이다.